

북스

Books

독일 문학의 기대주

켈만 신작 '명예' 출간

독일 문학의 기대주로 주목받는 작가 다니엘 켈만(36)의 신작 '명예'가 번역·출간됐다. '세계를 제다'와 '나와 카민스키' 등의 작품으로 국내에 알려진 작가의 2009년 발표작이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는 여러 층의 실험적 구성을 시도한 작품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중독을 소재로한 '목소리' '위험 속에서' 등 아홉 편의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큰 그림을 그린다.

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른 이야기에 등장하며 각 이야기가 퍼즐처럼 맞춰지고, 꿈과 현실이 뒤섞여 있다.

〈민음사·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여성 'S라인'은 1920년대 생겼다

예쁜 여자 만들기

이영아 지음

최근 한 조사를 보면 구직자 10명 중 3명은 취직을 위해 성형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응답자 중 50%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성형받고 싶다고 답했다. 쌍꺼풀, 코, 사각턱, 광대뼈, 무턱 교정, 안면윤곽 등 성형수술을 하는 부위도 늘어나고 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아름다워지기 위해 노력할까? 또 유독, 여성에게 아름답기를 강요하는 걸까?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이영아 연구원의 신간 '예쁜 여자 만들기'는 한국 여성들이 언제부터 '예쁜 여자'가 되는 일에 집착하게 됐는지 그 역사적 근원을 추적한다.

저자는 "제 스스로가 '미인 강박'의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책을 쓰게 됐고, 표지에 적힌 '우리 안에는 늘 똥녀가 살고 있다'는 저를 두고 한 말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그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일명 'S라인'으로 불리는 여성의 곡선미를 따지기 시작한 것은 1920~30년대부터였다.

20세기 직전만 해도 한국 여성은 S라인보다는 상체는 평평하고 좁으며 하체는 풍만하게 보이는 소문자 b에 가까운 '상박하후'(上薄下厚)의 체형을 아름다운 몸으로 여겼다.

하지만 1920년대 차마 길이가 짧아지면서 남성들이 여성들의 각선미를 따지기 시작했고 1930년대부터는 가슴 부위의 곡선미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저자는 "1920~30년대부터 여성의 곡선미를 따

지기 시작했다. '키가 작으면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미인이라고 할 수 없다' '목이 짧은 여자는 보기만 해도 화가 난다' 등 남성 문사(文士)들은 아예 내놓고 여성의 외모를 두고 이런저런 품평까지 하게 됐다. 예쁜 여자를 우대하면서 외모지상주의 사회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 여성들이 예쁜 여자가 되는 일에 집착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과거 예쁜 여자는 타고난 존재였지만 현대에 와서는 만들어지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다.

이런 미인 되기 가능성의 확대는 근대 이후 출현한 현상이다. 이 때문에 아름답지 못한 것은 자기 관리를 못하는 여자를 넘어 무능한 여자라는 꼬리표까지 붙게 됐다는 것이다.

또 이런 풍토는 아름다워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여성들을 출동시켰고, 그 결과 미 관련 상품을 구매하게 만들었다.

저자는 아름다운 몸매에 대한 여성들의 높은 관심을 당시 잡지 기사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또 여성들이 왜 '예쁜 여자 되기'에 그토록 집착하게 됐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제대로 알고, 미의 기준에 따를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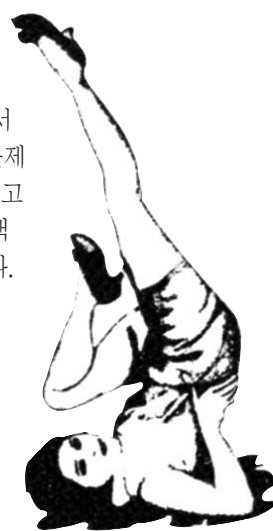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성찰도 담았다. 외모지상주의는 근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생겨난 사회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예뻐지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책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

여성들에게 다른 방식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낼 것을 제안한다.

〈푸른역사·1만3900원〉

/오광록기자 kroh@

kwangju.co.kr



신윤복의 '미인도'. 20세기 직전까지 한국 여성에게는 상체는 좁고 평평하게, 하체는 풍만하게 보이도록 상박하후형 실루엣이 아름다운 몸으로 여겨졌다.

〈푸른역사 제공〉

교실 밖으로 걸어나온 시

김선우·손택수 지음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화학시험 시험에 대비해 밑줄

그으며 외운 경험뿐인 이들에게 시는 그다지 반가운 존재로 인식되지 못한다.

1970년 동갑내기 시인 김선우·손택수씨가 쓴 '교실 밖으로 걸어나온 시'는 이런 이들이 시를 즐길 수 있게 돕는 책이다.

시 감상과 시작에 대한 문제를 다룬 책에서 저자들은 여는 글 '공부하지 말고 즐기세요!'를 통해 "자신의 시가 출제된 시험지를 구해 풀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시인 자신도 모르겠더라는, 풀어 본 문제의



절반을 틀렸다는 시인의 고백이 우스갯소리처럼 회자된 지 오래"라며 "시를 '즐길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시를 교육하는 일의 핵심이건만, 우리의 시 교육은 시를 즐기는 능력을 오히려 빼앗아 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자문해 본다"라고 밝히고 있다.

저자들은 먼저 다양한 시인들의 시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시를 어떻게 읽고 즐길지 안내한다.

시인들은 "나는 시를, 당대에 대한, 당대를 위한, 당대의 유언으로 쓴다"로 시작하는 황지우 시인의 '도대체 시란 무엇인가'를 비롯해 최영미의 '시', 나희덕의 '서시' 등을 들려 시를 쓰는 이들의 고뇌와 바람을 전한다.

"꼭 집어 정의할 수는 없지만 '시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 대한 고

시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즐겨야 하는가

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시적인 순간'들을 최대한 '시'로 받아들이며 즐기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2쪽)

이와 함께 설화, 나무, 바다, 편지, 사랑, 도시 등 각양각색의 소재를 다룬 우리 시대 대표문인들의 시 60여 편을 살펴보면 여기에 얽힌 일화를 풀어놓는다.

시와 시에 얽힌 일화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현대 한국 시단의 변천사와 함께 한국 사회의 변천사도 이해할 수 있다.

딱딱하지 않은 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시의 세계로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선사하는 책이다. 〈나리말·1만1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책



▲서커스의 밤=날개가 달린 서커스단 공중극에서 여인과 그녀의 날개에 의문을 품은 신문기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국 작가 앤젤라 카터의 환상소설. 런던의 빈민가 매음굴에서 자란 페버스는 사춘기가 되면서 돌은 날개로 나는 법을 배우고 서커스단에 들어가 유명세를 탄다. 신문기자가

책 월서는 페버스의 진실을 밝히고자 서커스단에 들어가고, 페버스에게 다가간 그는 점점 미궁에 빠지고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창비·1만9000원〉



▲왜 잘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나=부자일수록 자녀의 학업 성적도 높다는 '학력의 대물림', '교육 양극화' 현상을 진단한다. 신명호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자녀 세대의 학력 불평등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고학력 중산층, 저학력 노동자층 등 다양한 계층의 부모와 자녀 29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했다.

〈한울·2만원〉



▲폭파범=스웨덴 인기 여성 추리작가 리사 마르틀룬드의 데뷔작. 1998년도에 출간돼 베스트셀러가 됐던 여기자 안니카 벵트손 시리즈의 첫편이다. 연속되는 폭탄 테러 사고를 둘러싸고 범죄 전문 여기자 안니카 벵트손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긴박한 취재 과정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정치, 사회적 구조의 모순을 날카롭게 그린다.

〈황금가지·1만3800원〉



▲철학의 숲, 길을 묻다=인터넷 네이버 캐스트에 연재중인 '철학의 숲'을 재구성했다. 고대에서 근대까지 서양의 대표 철학자 22명이 던진 질문과 핵심답변을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 시대순으로 엮었다. 그림과 사진 자료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해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물빛·1만5000원〉



▲은퇴하면 뭐 먹고 살래=은퇴 코디네이터 유상오(주)그린코리아컨설팅 대표가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이 은퇴 준비의 전부가 아니라며 실질적인 노후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전한다. 저자는 은퇴 후에는 돈이 없다면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없는 돈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때 노후자금보다도 중요한 것이 건강과 가족, 친구, 그리고 일과 공부, 취미와 봉사라고 주장한다.

〈나무와숲·1만3000원〉



▲한국외교 24시=외무부 출입기자를 시작으로 워싱턴 특파원 등을 지내며 20여 년간 외교 현장을 지켜본 이승철씨가 김영삼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한국 외교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헤쳤다. 저자는 지금까지의 한국 외교가 국내 정치만 바라보는 '국내용 외교', 국제 행사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벤트 외교', 실리보다 의전이나 겉치레를 중시하는 '형식 외교'에 그쳤다고 비판한다.

〈부기·1만6000원〉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2010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해'를 기념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최재천 서울대 교수 등 전문 필진들과 함께 펴낸 생물에 대한 교양서. "수백만 여종의 생물과 생태계 등 모든 생명의 중요로움"으로 정의되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인간에게 주는 혜택 등을 쉽게 설명했다.

〈공리·1만2000원〉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할 작! (Large stylized text)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초록우산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천과 관심만이

소중한 아이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10여 년 동안 학대피해 아동을 돌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어린이와 함께 하는 꿈
초록우산

아동학대
신고전화
후원문의

1577-1391
(062)351-3513